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김기승*, 함혜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al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elf-esteem

Ki Seung Kim*, Hae-Soo Ham
Division of Oriental Science,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등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2부를 제외하고 총 18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배경에 다른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에 비하여 어머니의가 더 높은 관계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거부적 과잉보호적 태도가 낮게 나타나며 애정적 태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애정적 태도와 과보호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버지양육태도의 애정적 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 on self-esteem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was given to 220 students, including 5th and 6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and 7th graders in middle schools in the Gyeonggi area. A total of 188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after excluding 22 responses that insincere responses or missing item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a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arental attitud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stronger relationship for mothers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self-esteem perceived by children than for father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grade of the children. Among the subfactors of parental attitude, affectionate attitude and overprotective attitude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In particular, an affectionate attitude among fathe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esteem of children.

Keywords : Parental Attitude, Self-Esteem, Rejective Attitude, Affectionate Attitude, Overprotective Attitude

*Corresponding Author : Ki-Seung Kim(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Received May 21, 2019

Accepted September 6, 2019

Revised July 15, 2019

Published September 30, 2019

1. 서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무기력과 신경증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원인이 바로 부모양육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 특히 부모관계에서 청소년이 많이 호소하는 상담 주제 중 진로와 학업에 대한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때로는 부모의 과잉보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청소년, 부모의 기대치가 높아서 걱정하는 청소년, 부모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청소년 등 다양한 형태의 고민과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많다. 실제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불만을 품고 전문상담실을 찾는 청소년의 수는 2010년에서 2013년 3년 동안 두 배 정도 늘었으며[2], 2015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한 내용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인관계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한 학생의 비율이 2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학업과 장래 진로 상담이 20.6%, 신체건강 상담 21.19%, 비행청소년과 관련된 상담 11.4%, 스마트폰 과다사용/인터넷 게임 중독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인관계 문제는 2014년에도 19.4%를 차지하여 이 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

청소년기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인격형성도 영향을 미치지만 대인관계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형성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기를 통하여 부모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은 사회적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신뢰는 대인관계를 통해 자기중심성을 줄일 수 있고 남들을 이해하고 자기를 통찰하게 되면서 자기신뢰와 자아존중감이 발달한다.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양육태도의 방식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항상 자녀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보이는 일은 중요하다[4].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 강제성과 감시가 심할수록 자녀의 자신감과 책임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5]. 그리고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과 학업의 중단 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6]. 특히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태도는 삶의 목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7].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검사, 진로결정수준 검사를 실시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수용적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8].

자아존중감은 자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자신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어떤 계획에 따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마음상태라고 하였다[9]. Rosenberg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존중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 하며 거부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10]. Tafarodi & Swann[11]은 자아개념의 구성요소로서 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초등학교 고학년년부터 형성된다는 주장도 있다. 아동기 중반이후 자아존중감은 자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통합하여 균형적인 자아평가를 함으로써 형성된다[12].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의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아동의 발달에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이 남녀 학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고학년과 저학년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양육태도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유아는 부모를 통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얻게 된다. 유아의 성격 형성은 아이 본인의 기질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 양육 태도, 가정의 환경과 사회적 경험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아동의 기질은 유전적 요인으로 천성적으로 타고나지만 양육 환경은 부모의 노력에 따라 조절 가능하기에 부모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15].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그중에서도 부모라는 인적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발달심리학자나 교육학자 간에 이견이

없고, 사회 복지적 측면의 아동복지적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아동이 최초로 상면하게 되는 가족 중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는 그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모는 가정에서 아동의 훈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양육자, 훈육자, 자아개념 발달의 촉진자, 주도성 발달의 조력자, 학습경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누구보다도 크다. 또한 Belsky[16]에 의하면 부모의 민감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적·사회적·지적 발달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에 비해서 양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Baldwin[17]은 부모의 엄격하고 거부적인 태도가 유아들의 정서불안정과 부모에 대한 신뢰감의 상실로 인하여 비합리적인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유아에게 베푸는 애정은 정서적인 면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Symonds의 연구결과를 보면 애정을 많이 받은 집단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하고 협동적, 우호적이며, 정직하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으며, 쾌활한 인성을 나타내는 반면 거절당한 집단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초조하며, 어수선한 활동이 많았다고 한다 [18].

Bandura와 Walters(1959)[19]는 부모간의 양육태도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에서 비행행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Mussen과 그의 동료 교수들은(1979)[20]은 4가지 유형을 사례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첫째, 온정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활동성이 강하고, 다정다감하며 창의성이 높고 독립적이며 사회생활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둘째, 온정적이면서도 엄격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성격이 온순하고 규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동시에 순종적이고 공손하고 단정하다.

셋째, 적대적이고 감시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자신에 대한 공격성향이 강하고 사회적으로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내면적으로는 갈등이 심하게 나타난다.

넷째, 적대적이면서 허용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는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절제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Leahy-Warren(2012)[21]는 부모에 대한 맹목적이고 존중이나 권위적 양육방식이 도덕적 판단과 상관관계

가 있다고 하였다. 권위지향적인 부모는 아동에게 맹목적인 존중을 강요하고 반대로 비 권위적인 부모는 아동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가족 내에서 참여를 허락함으로써 아동의 도덕적 판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유안진·이점숙(2004)[22]은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은 유아에게 사교적이고 협동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원영(1983)[23]은 어머니의 과잉보호는 자녀를 퇴행적이고 의존적인 인간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부모의 인지적이고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행동을 강조하였다.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엄격함이 가장 효과적인 양육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소아의학과 심리학의 발달은 부모의 양육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부모 자녀 관계의 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Freud 학파의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인식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Freud는 18~19세기의 시대적 영향으로 수유(feedin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어린 아이는 수유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는데, 수유를 통해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신생아는 발달의 제1단계가 구강기에 형성되고 영아에게 애착의 대상은 구강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머니라는 것이다.

Freud 이후 그의 이론을 전수받아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Symonds는 수용과 거부 그리고 지배와 복종 차원에서 양육태도를 연구하였다. 그는 양육태도의 유형을 적극적 간섭형, 조금 불안형, 매우 소극적 비교적 거부형, 적극적 거부형, 매우 엄격형, 약간 기대형, 무조건 복종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과보호도, 절대 종도 아닌 절충 형이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라고 보았다. 한편 Schaefer는 Symonds가 임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양육태도를 분류한 방법에서 탈피하여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는 애정 혹은 적대, 자율 또는 통제 의 형식으로 구분하여 양육태도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양육태도로 애정과 자율적 태도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형의 양육태도 하에서 아동은 협동적, 외향적, 독립적 성향을 지니고 사회 적응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녀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관계의 유지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행동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바람직한 부모

양육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친밀성이다. 부모는 아동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진실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기대는 발달 수준 이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진 친밀성을 포함하여 구성된 부모의 양육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 차원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Bowlby가 제시하고 있는 애착의 개념 중 친밀, 의존, 불안의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여 부모 양육태도를 살펴 보았다. Bowlby는 젊은 시절 교사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가족의 행동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Bowlby는 자신의 저서 「The Nature of the Child's Tieto His Mother」에서 어머니와 영아의 유대관계의 형성은 구강적 욕구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유대관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달성된 것이고, 애착은 이차적인 욕구충족이라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애착을 통해서 유아는 부모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의지하려는 본능이 그대로 표출된다고 보았다. 아동이 불안을 경감하게 되는 경우는 부모의 비일관적 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불안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2.2 자아존중감

Rosenberg는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높은 자아존중감,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과 경멸 등을 나타내며 자신을 거부하는 것을 낮은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였다. Branden은 자아존중감을 행복한 삶을 위해 모험하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했다.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언어적 판단과 정서적 발달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자기에 대한 평가적 측면을 강조한 Coopersmith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아동과 청소년 발달의 중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그의 성장과 어려움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비행, 자해, 공격성을 포함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고혜영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와 신체화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높아진 스트

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이 신체화 증상을 유발시킨다고 하여 자아존중감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건에서 심리적 고통을 더 많이 호소한다는 연구가 있다. 자아존중감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에 의하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향상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Beck[24]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우울을 구별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Jahoda(1958)는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의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라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Lingren(1991)은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25],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시작되고 격려 혹은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대한 자기평가의 결과와 타인들의 동의여부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박선희[27]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교사의 지지하는 학년인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하여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Sarason, Sarason과 Pierce(1990)[28]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신뢰할 때 만족감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긍정적인 자아가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환경을 탐색하며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도전할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거나 자기의 가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전하거나 새롭고 낮은 상황에서 불안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유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집과정에서 누락된 설문지와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88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연구도구

3.2.1 부모양육태도

Arrindell et. al[29]. 등이 개발하여 국내에서 사용 중인 23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거부적 태도 6문항, 애정적 태도 7문항, 과보호적 태도 7문항 등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신뢰도는 거부적 태도 부 .763, 모 .802, 애정적 태도 부 .803, 모 .712, 과보호적 태도 부 .721, 모 .703 등의 Cronbach's α 값을 보여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3.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senberg(1979)[30]가 개발하여 국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 6개의 개별항목을 Likert 5 Point Scale(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 분석하여 합산한 점수를 자아존중감으로 명명하였으며, 신뢰도는 .793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요인분석결과 요인의 적체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SPSS Window for 21.0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을 하였다. 둘째,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의 신뢰성(reliability)을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Table 1. Factor analysis

	factor	factor 1	factor 2	factor3	factor4
rejective attitude	factor1	.702	.102	.084	.246
	factor2	.744	.084	.079	.022
	factor3	.692	.082	.014	.028
	factor4	.552	-.042	.018	.134
	factor5	.673	.143	.046	.023
	factor6	.712	.063	.021	.243
affectionate attitude	factor1	.032	.723	.254	.068
	factor2	-.009	.776	.333	.071
	factor3	.008	.776	.302	.062
	factor4	.156	.776	.304	.022
	factor5	.362	.776	.402	.002
	factor6	.032	.776	.179	.826
	factor7	.221	.776	.144	.602
overprotective attitude	factor1	-.045	-.346	.736	.023
	factor2	.066	.002	.842	.024
	factor3	.154	.042	.811	.153
	factor4	.184	.064	.811	.189
	factor5	.176	.084	.811	.286
	factor6	.126	-.432	.811	.277
	factor7	.721	-.014	.811	.209
self-esteem	factor1	.007	.003	-.146	.811
	factor2	.036	.026	.006	.764
	factor3	.194	.234	.121	.621
	factor4	.054	.002	.024	.681
	factor5	.012	.024	.044	.643
	factor6	.193	.314	.072	.702
Eigenvalue		8.516	5.204	9.012	4.008
Description ratio		24.337	12.236	16.228	13.116
Cumulative rate		24.337	36.563	52.791	65.907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동이 인식한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거부적 태도는 1.29, 어머니의 거부적 태도는 1.31이었으며, 애정적 태도는 아버지가 2.94, 어머니가 3.21로 나타났다. 과보호적태도는 아버지가 1.67, 어머니가 1.82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전체 평균은 3.18이었다.

4. 분석결과

4.1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parenting attitude and self-esteem

(N=188)

Variable	Sub-factor	M	S.D
parenting attitude (Father)	rejective attitude	1.29	.39
	affectionate attitude	2.94	.67
	overprotective attitude	1.67	.44
	Total	1.99	.27
parenting attitude (Mother)	rejective attitude	1.31	.45
	affectionate attitude	3.21	.61
	overprotective attitude	1.82	.56
	Total	2.13	.31
self-esteem		3.18	.33

Table 3.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grade

(N=188)

Variable	Sub-factor	Grade	N	M	S.D	F	p
parenting attitude (Father)	rejective attitude	Grade 5	67	1.32	.46	1.828	.316
		Grade 6	61	1.32	.42		
		M.school	60	1.24	.28		
	affectionate attitude	Grade 5	67	2.98	.64	.096	.092
		Grade 6	61	2.92	.62		
		M. school	60	2.94	.65		
	overprotective attitude	Grade 5	67	1.72	.43	1.088	.344
		Grade 6	61	1.68	.34		
		M. school	60	1.70	.42		
parenting attitude (Mother)	rejective attitude	Grade 5	67	1.32	.58	.642	.586
		Grade 6	61	1.34	.68		
		M. school	60	1.26	.62		
	affectionate attitude	Grade 5	67	3.26	.58	.682	.502
		Grade 6	61	3.24	.48		
		M. school	60	3.16	.54		
	overprotective attitude	Grade 5	67	1.82	.28	1.348	.292
		Grade 6	61	1.74	.34		
		M. school	60	1.82	.42		
self-esteem		Grade 5	67	3.08	.28	.662	.422
		Grade 6	61	3.23	.33		
		M. school	60	3.14	.41		

4.2 아동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아동의 일반적 배경(학년, 성별)에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차이

아동의 학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동의 학년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양육태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는 5, 6학년의 평균이 높았으며, 애정적 태도는 5학년의 평균이 높았다. 과보호적 태도는 중학교 1학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는 6학년의 평균이 높았으며, 애정적 태도는 5학년, 과보호적 태도는 4학년과 중학교 1

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6학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전체의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r=.64, p<.01$), 과보호적 태도($.38,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적 태도($r=-.31, p<.01$)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거부적 태도를 많이 취할수록 어머니가 거부적 태도와 과보호적 태도를 많이 나타내며, 애정적 태도는 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gender.

(N=188)

Variable	Sub-factor	Gender	N	M	SD	t	p
parenting attitude (Father)	rejective attitude	M	96	1.36	.46	1.162	.316
		F	92	1.22	.42		
	affectionate attitude	M	96	2.82	.28	.082	.882
		F	92	2.98	.66		
	overprotective attitude	M	96	1.72	.64	.096	.902
		F	92	1.70	.63		
parenting attitude (Mother)	rejective attitude	M	96	1.36	.47	1.066	.338
		F	92	1.28	.44		
	affectionate attitude	M	96	3.24	.41	.544	.582
		F	92	3.26	.54		
	overprotective attitude	M	96	1.86	.66	.682	.504
		F	92	1.74	.60		
self-esteem	M	96	3.21	.43	1.443	.301	
	F	92	3.16	.52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parenting attitude (Father)	rejective attitude	1						
	affectionate attitude.	-.49**	1					
	overprotective attitude	.41**	-.13	1				
parenting attitude (Mother)	rejective attitude	.64**	-.32**	.26**	1			
	affectionate attitude	-.31**	.64**	-.12	-.27**	1		
	overprotective attitude	.38**	-.24*	.51**	.52**	-.16	1	
Self-esteem		.08	.16		.10	.14	18*	1

* $p < .05$, ** $p < .01$

1) 학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Table 5와 같다.

학년집단에 따라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5학년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7.25%(R2=.072)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29, p<.05). 6학년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34.42%(R2=.344)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4.22, p<.001). 아버지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거부적 태도(β =.32), 애정적 태도(β =.33)와 어머니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거부적 태도(β =.41), 애정적 태도(β =.44)가 아동의 자존감에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Table 6.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self-esteem according to grade

(N=188)

Dep. Var.		B	β	t	R^2 F	
Grade5	(Father)	rejective attitude	.08	.13	.93	.072 4.29*
		affectionate attitude	.08	.15	1.28	
		overprotective attitude	.03	.04	.39	
	(Mother)	rejective attitude	.12	.18	1.46	
		affectionate attitude	.06	.09	.72	
		overprotective attitude	.08	.16	1.09	
Grade 6	(Father)	rejective attitude	.38	.32	2.44*	.344 34.22**
		affectionate attitude	.19	.33	2.69*	
		overprotective attitude	.19	.21	1.66	
	(Mother)	rejective attitude	.31	.41	3.28**	
		affectionate attitude	.24	.44	4.12**	
		overprotective attitude	.22	.29	2.52*	
Middle School1	(Father)	rejective attitude	-.47	-.32	-2.23*	.008 .522
		affectionate attitude	.08	.12	.83	
		overprotective attitude	.25	.28	2.43*	
	(Mother)	rejective attitude	-.51	-.32	-3.66**	
		affectionate attitude	.07	.09	.78	
		overprotective attitude	.26	.33	2.24**	

Table 7.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the self-esteem according to gender

(N=188)

Dep. Var.		B	B	t	R^2 F	
Male	(Father)	rejective attitude	.00	.00	.03	.063 7.94**
		affectionate attitude	.09	.16	1.24	
		overprotective attitude	.14	.18	1.56	
	(Mother)	rejective attitude	-.06	-.08	-.09	
		affectionate attitude	.13	.22	2.22*	
		overprotective attitude	.21	.31	2.59*	
Female	(Father)	rejective attitude	.23	.18	1.44	.072 7.68**
		affectionate attitude	.16	.32	2.88*	
		overprotective attitude	.05	.07	.59	
	(Mother)	rejective attitude	.21	.21	1.47	
		affectionate attitude	.09	.16	1.53	
		overprotective attitude	.03	.06	.46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4.22$, $p<.001$). 중학교1학년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8%($R^2=.008$)로 나타났으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Table 7과 같다.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6.3%($R^2=.063$)이었으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94$, $p<.01$).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애정적 태도($\beta=.22$)와 과보호적 태도($\beta=.31$)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7.2%($R^2=.072$)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에서 아버지양육태도의 애정적 태도($\beta=.32$)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아동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학년에 따라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강지은(2018)[31]은 초등학생 고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허미란(2012)[3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년 중에서 5학년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년적 특성으로 보여지며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장미영(2006)[33]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부와 모의 애정, 자율, 성취, 비성취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중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민혜영

(2011)[3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민정(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학년 간에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 과보호적 태도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정적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전체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적 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와 과보호적 태도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애정적 태도와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과보호적 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거부적 태도, 과보호적 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전체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거부적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애정적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미영(2006)과 이남숙(2011)[35]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민혜영과 강숙정(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김혜경(2010)[36]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가 온정적인 태도와 정적 상관을 갖으며, 거부권위주의적 태도와 부적 상관을 갖는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중요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와 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그러나 특성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내용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References

- [1] J. S. Choi, "Effect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self-assertiveness on the interpersonal problems", Major in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The Graduate school Hoing University, 2013
- [2] EBS News, 2013 10. 03.
- [3] www.kyci.or.kr/BoardNew/board_attach_download.asp?boIdx=508&aF.
- [4] M. J. Kim, "The Analysis of Type Differences in Parenting Attitudes, Clusters: Focusing on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 Peer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Vol.12, No.2, pp.130-152, 2016.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6.12.02.239>
- [5] S. J. Jung, Path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home/student variables and Lenard helplessnes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Gyeong Sang University, 1995
- [6] Y. O. Nam,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8, No.4, pp.251-274, 2018.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4.139>
- [7] M. K. Kim,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nd Peer Attachment, a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ir Life Goal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0, No.3, pp.53-70, 2018
DOI: <https://doi.org/10.5934/kjhe.2015.24.6.783>
- [8] H.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Self-esteem, and Career Decision in High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53, No.3, pp.63-88, 2005.
- [9] Coopersmith, S..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francisco: Washington, Freeman, 1967
- [10]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11] Tafarodi, R. W., & W. B. Swann. Self-liking and self competence as dimensions of global self-esteem: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2), pp.322-342, 1995.
DOI: https://doi.org/10.1207/s15327752ipa6502_8
- [12] Case, A. C., & L. F. Katz. The company you keep: the effects of family and neighborhood on disadvantaged youths.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1.
- [13] S. Y. Bae & H. J. Kim, The effects of a career exploration group educational program on career recognition and self-esteem amongst elementary students in their senior years.,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7, No.4, pp.122 136, 2016.
DOI: <https://doi.org/10.14816/sky.2016.27.4.59>
- [14] J. A. So & H. C. Seo. The influence of Elementary student's behavioral inhibition, covert narcissim, parental rearing, self-efficacy and emotional regulation on Social Anxiety, Brain education research, Vol.18, pp.41-68. 2016
- [15] M. H-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Attitude for Child Caring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 Social Adaptation through both Day -care and nursery Educatio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0.
- [16]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Vol.107, pp.238-264.
DOI: <https://doi.org/10.2307/1129836>
- [17] Baldwin, A. L.,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20, pp. 48-61, 1949
DOI: <http://dx.doi.org/10.2307/1125606>
- [18] Coopersmith, S.,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francisco: Washington, Freeman, p.52, 1967.
- [19] Bandura, A., & Walters, R. H., Adolescent aggression. New York: Ronald Press, 1959.
- [20] Mussen, P.H., Conger, J.J. and Kagan, J.,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3rd ed.), 1979.
- [21] Leahy-Warren, P., McCarthy, G., & Corcoran, P., First time mothers: Social support, maternal parental self efficacy and postnatal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34), pp.388-397, 2012.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4.10.5.101>
- [22] A. J Yoo and J. H. Sir, Relation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 9(3), pp.161-180, 2004
- [23] W. Y. Lee,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ducational Views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 Development", Major in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 University, 1983.
- [24] Beck, A. T.,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1967.
- [25] Coopersmith, S.,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Sanfrancisco: Washington, Major in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The Graduate school Hoing University, 2013
- [26] S. H-Park, A Study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Development, 5(1), pp.17-34, 2017.
- [27] S. H-Park, A Study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Cognitive Development, 5(1), pp.17-34,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11.523>
- [28] Sarason, B. R.,Pierce, G. R., & Sarason, I. G., Socialsupport: The sense of acceptance and the role of relationships.In B.R. Sarason,I.G. Sarason,&

G.R.Pierce(Eds.), Socialsupport: An interactional view (pp.97-128).New York:Wile, 1990

- [29] Arrindell. W. A., Sanavio, E., Aguilar. G., Sica, Hatzichristou, C., Eiseman, M., Recinos, L. A., Gaszner, P., Peter, M., Battagliese, G., Kallai, J., & van der Ender, J.. The development of a short form of the EMBU: Its appraisal with students in Greece, Guatemala, Hungary and Ital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 pp.613-628, 1999
DOI: [https://doi.org/10.1016/S0191-8869\(98\)00192-5](https://doi.org/10.1016/S0191-8869(98)00192-5)
- [30]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31] J. O. Cang,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 Ego-Resilience and Self Efficacy to Learned Helpless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jor in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The Graduate school Kyungnam University, 2018
- [32] M. R. Hu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Environmental Behavior: Gocused on Gran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Major in Elementary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33] M. Y. Jang,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Self-Esteem and Prolem Solving Ability", Major in Elementary Education,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6
- [34] H. Y. Min, "A stud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esteem,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Perception of Parents' nurturing attitudes", Major in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1
- [35] N. S. Lee, "The Influ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Academic Achievement toward Self-Esteem Formation Children", Major in Elementa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2011
- [36] H. K. R.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life-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Major in Elementa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ansin University, 2010

김기승(Ki-Seu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1년 2월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국선천적성평가원장
- 2012년 5월~현재 : 사단법인 한국작명가협회 이사장
- 2012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관심분야>

진로교육, 선천적성, 진화심리, 직업상담, 타고난 재능

함혜수(Hae-Soo Ham)

[정회원]



- 2008년 8월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동양철학석사)
- 2015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동양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진로직업상담, 선천적성, 직업심리, 교육심리